



## 미 연준, 물가상승 없는 새로운 양적완화 방안 검토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3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- 새로운 채권매입 프로그램은 연준이 장기 모기지 채권 및 국채를 매입함과 동시에 단기자금시장에서 저금리로 차입함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불태화(sterilized) 방식이며, 이는 채권 매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함임.
- 연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조 3,000억 달러의 공격적인 장기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으며, 2011년부터는 단기국채를 매도하는 동시에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- 이번 방안은 장기국채 매입자금을 단기자금시장에서 RP 등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■ 동 프로그램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달리 연준의 단기채권 잔고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시장에 모순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함.

- 현재 연준이 매도 가능한 단기채권 잔고가 2,000억 달러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추가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나, 동 방안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음.
- 또한, 연준이 RP를 통해 은행 외의 MMF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 시행에 있어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.
- 그러나 RP로 인해 현재 제로 수준에 가까운 단기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, 그동안 금융긴축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RP가 장기채권 매입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은 시장에 모순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, 3/7)